



2025년 2월 9일(제1233호) 연중 제5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고, 배 하나로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느님의 존재 바로 앞에 서서,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에게서 떠나가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나를 초대 하시는 주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다 될 것 같던 세상일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필리 4,13)

참된 평화의 하느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하느님께서는 함께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느님의 존재를 놓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목표를 자주 낮춰 버리고 안주해 버리고 맙니다.

또 우리는 쉽게, 사랑 실천의 과업들의 규모를 축소해 버리고 맙니다. 간사한 유혹에 휘둘러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나의 선입견, 고집, 욕심들-을 놓아버립시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루카 5,11)



오준혁(벨리아) 신부  
은성대(공군 제19진주비행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이사 6,1-2 7.3-8
- 회    답    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제 2 특 시    1코린 15,1-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 복            음            루카 5,1-11
- 영    상    제    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동정부부 순교자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1.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치명의 결실을 맺기 전에 이처럼 글로써 다짐하는 일이 참으로 경솔한 짓이지만, 어머니의 근심을 풀어드리고 반기시게 하려는 일이니, 이 편지로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주문모 신부)께서 계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 집안의 풍파를 자세히 기록하여 두라 하시기에, 여기에 온 후 요한(시동생 유문석) 편에 관청에서 진술한 기록을 집으로 보냈는데 어찌하셨습니까?

천만 번 바라니 마음을 너그러이 자제하십시오. 이 세상은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드릴 말씀이 많고 많으나 편지로는 다 말씀 드릴 길 없어 대강 이만 아립니다.

1801년 9월 27일  
딸자식이 삼가 절하며 이 편지를 올립니다.

『동정부부 순교자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지명지신성지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무엇을 어떻게 더

아무리 큼직한  
다이아몬드를 내밀어도,  
사랑한다 만 번을 외쳐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움직일까.  
그 사랑을 받아 드릴  
마음이 내게 있기는 한가.

무엇을 봐야 믿을까.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고기잡는 기적



콘라드 비츠(Konrad Witz, 1400-1445), 1444년경 제작 나무 위 유화, 134.6 × 153.2cm / 제네바 미술관, 스위스

독일 출신의 콘라드 비츠라는 화가가 제작한 작품으로, 인물만큼 풍경에도 큰 중점을 둔 르네상스 시대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풍경은 실제 제네바 호수를 충실하게 묘사한 것으로, 동시대 인물들은 마치 우리가 현대의 웅장한 파노라마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이 작품에서 받았다.

이 작품의 주제는 오늘 복음 말씀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과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겠다고 장담했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 성인의 모습을 한 작품에 같이 묘사한 것으로, 예수님은 온통 붉은 색의 겹옷을 입고 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마치 물 위에 서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배 위 오른쪽에서 두 번째, 푸른색 옷을 입고 흰 수염을 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 보이고, 맨 오른쪽 인물은 겹옷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표현되어 일종의 운동감과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 앞으로 물에 빠져 당황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그림이 인상적인 것은 물 위에 반사된 인물들과 사물들이다. 물에 떠 있는 배 주변에는 물결들이 일렁이고 있으며, 배 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물 위에 마치 거울처럼 반사되어 그려져 있고, 이는 풍경도 마찬가지이다. 호수에 건물과 자연 풍경이 반사되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이 당시에는 놀랄 만큼 사실적인 사물 묘사로, 지금까지도 풍경을 작품에 조화롭게 녹아 넣은 작품들 중 선구자적인 작품으로 여겨진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루카 5,10-11)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5주일: 진성대 진성주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요한(1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2월 9일(주일)
- 마산교구 제6대 교구장 이성호 리노 주교님 착좌식  
 때·곳: 2월 12일(수) 14:00, 창원컨벤션센터
- 군중현안협의회의, 국장회의  
 때·곳: 2월 11일(화), 교구청 회의실
- 군중후원회 전국 총회  
 때·곳: 2월 14일(금) 10:30, 군중교구청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각진성사의 해” - “상령께서 너희에게 나타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